

# 100억대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광주·전남 종교단체 등 15곳 적발

## 사회단체 3곳도 포함

지역 A사찰은 최근 문을 닫았다. 연말 정산 때 제출할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달라는 신도들의 빚발치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선택한 방법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둘러댔다.

이 사찰은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에 오르는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신도들은 올해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100일 기도 사례금 등을 보시(布施)로 전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여간 난감한 게 아니라는 게 종교단체 운영진의 하소연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에 포함된 광주·전남 지역 단체는 모두 15곳으로, 이들이 발급한 기부금 총액은 103억 3800만원에 달했다.

드러난 기부금 영수증만 놓고 보면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무려 103억원 어치의 기부금을 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들 단체들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상당수는 기부금을 훨씬 부풀려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가 하면, 아예 기부금액이 없는데도 만들어 끊어주는 방식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기부자 인식사항과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거나 총 발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현행법을 어겨 발급명세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광주·전남 15개 단체 중 12곳이 종교 단체였고, 시민사회단체로 간판을 내걸었던 단체도 3곳이 포함됐다.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광양시지회라는 단체는 최근 3년 이내 무려 13억4300만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

## ■ 2014년 광주·전남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현황

단체명	적발내용
대한불교조계종함림사	거짓영수증 153건 6200만원 발급
한국불교 극락조계종 보현사	거짓영수증 62건 1억200만원 발급
○ 전남	
대한불교 대승종 상은사	거짓영수증 204건 5억6100만원 발급
대한불교원 조계종 영취사	기부자별 발급명세 510건 6억2300만원 미작성 미보관
대한선불 조계종 도솔암	거짓영수증 70건 1억7600만원 발급
대한선불 조계종	거짓영수증 695건 8억3200만원 발급
대한선불 조계종 정은사	거짓영수증 428건 5억4700만원 발급
사단법인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광양시지회	기부자별 발급명세 1487건 13억4700만원 미작성 미보관 거짓영수증 321건 13억4300만원 발급
사단법인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전남순천시지부	거짓영수증 125건 1억4400만원 발급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전남본부 순천시지회	거짓영수증 237건 12억3400만원 발급
수연암	기부자별 발급명세 13억9000만원 미작성 미보관 거짓영수증 36건 6500만원 발급
시왕사	기부자별 발급명세 493건 3억4700만원 미작성 미보관
약천사	거짓영수증 176건 3억6200만원 발급
연화사	기부자별 발급명세 721건 4억1400만원 미작성 미보관
한국불교태고종 성불사	거짓영수증 638건 7억8900만원 발급

※ 단체명에서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했으나,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음. (자료 : 국세청)

다가 적발됐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놓고도 정작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를 보관하지 않는 사례도 무려 1487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만 13억4700만원에 달하고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을 어기면서까지 보관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전남순천시지부는 1억4400만원 상당의 거짓영수증을 발급했다가 국세청 감사방에 걸렸다.

☞환경실천연합회 전남본부 순천시지회도 무려 12억3400만원 상당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이 단체는 해당 지회를 제명된 상태다.

종교단체의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는 함림사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함림사가 발급한 6200만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 153건을 발급했

다고 공개했다. 함림사측은 "대한불교조계종단과 신도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말 정산 때 근로자들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면 과세 대상 소득의 최고 30%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15%를 곱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가 빚어지고 있다는 게 세무 당국의 분석이다. 단체 입장에서는 기부금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단체 가운데 폐업을 한 뒤 다른 사업자명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거짓 영수증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근로자는 40%의 가산세를, 발급 단체는 액수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발코니 확장 폭 1.5m 이상 댄 전용면적에 포함

### 법원 "취득세 등 과세 적법"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3년 11월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중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법하고 확장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

세 등 함께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A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와 관련된 각종 신고를 할 때에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들어 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면적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연형뉴스



## 실기시험 혼신의 붓질

5일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열린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정시모집 실기시험 참가자들이 혼신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헤어진 여친에 집착, 납치하려다...

### 공범이 범행 계획 누설...30대 딸미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으로 흥신소를 동원하는가 하면, 활동비를 주며 미행을 불리고 끝내 납치까지 계획했던 30대 직장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33)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37)씨에 대한 납치 계획을 세운 것은 '윤명같은 내 사랑'이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됐다.

김씨는 헤어지고 나서야 여자친구가 자신의 사랑이라고 깨달았지만 B씨가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납치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김씨는 우선,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

해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온 정모(25)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넨 뒤 미행을 지시했다.

일이 마무리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정씨는 김씨 말을 일주일가량 충실히 따랐다. 김씨는 또 전기충격기에 청타이프, 각목과 흉기 등 납치에 쓸 위험한 도구까지 차량에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씨의 범행은 그러나 상황이 심각함을 느낀해 깨달은 정씨의 제보로 딸미가 잡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정씨는 지난달 중순 B씨에게 문자로 위협을 경고했고 나중에는 직접 전화까지 걸어 김씨의 계획을 알렸다. B씨는 "납치를 준비하고 있다 흥신소 직원도 고용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뒤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 검거했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내려주지 않는 등 갑급하다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세번 헤어졌지만 헤어지고 나서도 여자친구에게 빠져들었고 집착이 커지면서 나도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걱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광주·전남 4명 총경 승진

경찰청은 광주지방경찰청 홍보실 양우천 경정 등 86명을 총경 승진 예정자로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청에서는 양 경정과 함께 조규환 감찰계장, 김을수 생활안전계장이, 전남청은 김상철 생활안전계장이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 예정자에 포함됐다.

한편, 광주청은 지난해 치안종합성과 평가에서 전국 16개 지방청 중 3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단골식당서 여종업원에 추태 부리고 주먹질한 취객



○...단골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추태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주인에게 폭행까지 휘두른 50대 취객이 경찰서행.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고모(57)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에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S음식점에서 종업원(여·58)에게 "술 한잔 같이 하자"며 동석을 요구, 식당주인 허모(여·57)씨가 "착하신 분이 왜 이러시냐"며 만류하자 허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

○...이날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식탁을 었는 등 난동을 부리던 고씨는 종업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고씨는 경찰에서 "자주 가던 식당이라 안면이 있어 술 한잔 하려고 했을 뿐인데, 너무 강하게 거부하자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빌라 3층 34평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천 파크 빌라 3층 304호
- 2013년 준공, 5층 중 3층 정남향
- 시세 및 감정가 1억 9천만원
- 매매가 1억 6500만원
- 즉시 입주, 내부 깨끗함

###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
- 328평, 33필지 중 1
- 택지조성 공사중
- 2015년 5월 원공 예정
- 매매가 1억 3120만원

### 제일 오피스텔

- 수기동, 12층, 29평
- 양동하천방향, 원룸
- 주거겸 사무실
- 화장실 등 전체 올수리
- 급매 6500만원

### 장성, 빌라 32평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
- 순이연립 301호
- 정남향, 즉시 입주 가능
- 현재 전 4500만원 임대 중
- 매매가 6000만원

##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가 7억 2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웅 3억 8천만 안고, 보 1억에 월 330만 임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주인 직매 합니다. H. 010-3605-5000